



VACHERON CONSTANTIN
GENÈVE

하이 워치메이킹
바쉐론 콘스탄틴의 시그니처,
레트로그레이드 디스플레이
2023년 3월 27일

하이 워치메이킹 바쉐론 콘스탄틴의 시그니처, 레트로그레이드 디스플레이

소개
고도로 정확한 메커니즘
광란의 1920년대를 되돌아보며
바쉐론 콘스탄틴과 레트로그레이드
디스플레이
전설적인 "돈 판초 DON PANCHO"
미학적 시그니처
시계 셀렉션

- 18세기에 등장하여 때로는 점핑 인디케이션을 동반하기도 하는 레트로그레이드 디스플레이는 극도의 정확성을 요구하는 까다로운 기술력을 대표합니다.
- 바쉐론 콘스탄틴에서는 1824년부터 점핑 인디케이션이 포켓 워치에서 등장했으며, 레트로그레이드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손목시계는 그로부터 100년이 지나서야 등장했습니다.
- 이 시계학적 컴플리케이션은 바쉐론 콘스탄틴의 시그니처로 자리매김했으며 메종의 현재 컬렉션의 일부를 이루고 있습니다.

기계식 시계 무브먼트의 구조에서 다이얼에 표시된 기능을 고잉 트레인에서 분리하도록 사용되는 스페셜 디스플레이는 초기 단계부터 워치메이커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점핑 및 레트로그레이드 디스플레이를 포함하는 이러한 컴플리케이션은 시간의 흐름에 대한 새로운 기술적, 미학적 해석의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바쉐론 콘스탄틴은 19세기 초반부터 점핑 인디케이션이 있는 포켓 워치를 디자인하기 시작했으며, 20세기에 레트로그레이드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시계를 개발했습니다. 이러한 디스플레이 컴플리케이션은 메종의 기술적, 미학적 시그니처로 자리매김하였으며 여러 컬렉션에서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레트로그레이드 및 점핑 디스플레이는 중앙 아워 핸드와 숫자로 표시되는 날짜 창을 포함한 전통적인 시간 표시 기능을 능가하고자 하는 워치메이커들의 관심을 빠르게 사로잡은 기술적 컴플리케이션입니다. 역사적인 기록에는 이미 18세기 중반에 이러한 대체 수단이 언급되어 있으며, 이는 특정 방식의 시간 또는 캘린더 인디케이터의 대체가 가능하게 한 다이얼 배열 덕분입니다. 바쉐론 콘스탄틴 최초의 점핑 디스플레이는 1824년에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메종이 손목시계의 레트로그레이드 디스플레이로 두각을 나타낸 것은 1930년대 중반부터였는데, 당시의 워치메이킹 코드가 강렬하고 창의적인 힘에 의해 주도되던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하이 위치메이킹

바쉐론 콘스탄틴의 시그니처, 레트로그레이드 디스플레이

- 소개
- 고도로 정확한 메커니즘
- 광란의 1920년대를 되돌아보며
- 바쉐론 콘스탄틴과 레트로그레이드 디스플레이
- 전설적인 "돈 판초 DON PANCHO"
- 미학적 시그니처
- 시계 셀렉션

고도로 정확한 메커니즘

레트로그레이드 디스플레이는 인디케이터가 다이얼을 완전히 회전하지 않는 대신 전체 측정 부분을 커버한 후 시작 지점으로 돌아가 다시 움직이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보통 활 모양으로 움직이는 핸드를 통해서 표시됩니다. 시, 분, 초 또는 날짜와 같은 주기적인 시간 표시를 위한 레트로그레이드 디스플레이 외에도 파워 리저브와 같은 "스위핑-타입 Sweeping-type"이라 불리는 레트로그레이드 디스플레이도 있습니다.

이 메커니즘은 고도의 정확성을 요구합니다. 전통적인 시계와는 달리, 레트로그레이드 핸드는 전용 휠과 직접 맞물리지 않는 대신 스프링과 피니언이 장착된 오프-센터 아버에 위치합니다. 기어 휠 위에는 눈금이 새겨진 스네일 캠이 있습니다. 둘 사이에는 한쪽에 스네일을 따라 움직이는 레버 암의 뾰족한 부분이, 다른 한쪽에 센트럴 스윙-세컨드 피니언과 맞물리는 랙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어의 회전은 스프링을 팽팽하게 하는 이 레버 암을 통해 레트로그레이드 핸드로 앞으로 이동시킵니다. 이러한 움직임이 끝나면 뾰족한 부분이 스네일의 눈금에 닿아 레버는 피니언에 부착된 스프링의 도움으로 즉시 세컨즈 핸드를 제로로 되돌립니다. 이러한 유형의 메커니즘은 특히 충격과 마모에 대한 저항 측면에서 엄격한 원칙이 요구됩니다. 부품에 따라 인디케이터는 60km/h를 초과할 수 있는 속도로 시작 지점으로 돌아갑니다.

점핑 디스플레이에는 특별한 구조 또한 필요합니다. 원칙은 기어의 에너지가 주기적으로 방출되는 저장 메커니즘으로 전달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스파이럴 캠이 있습니다. 이 캠이 완전히 회전하면 레버가 눈금에 멈추어 아워 디스플레이와 같은 디스플레이를 즉시 해제하거나, 시스템이 연달아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여러 디스플레이가 해제되어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1. 다이얼 아래의 핸드로 표시되는 점핑 아워 및 미닛을 탑재한 포켓 워치 (Ref. Inv. 10152) - 1929년
2. 메르카토르 Mercator 플래티넘 손목시계, 바이-레트로그레이드 디스플레이 (Ref. Inv. 12055) - 2001년



하이 워치메이킹 바쉐론 콘스탄틴의 시그니처, 레트로그레이드 디스플레이

소개

고도로 정확한 메커니즘

광란의 1920년대를 되돌아보며

바쉐론 콘스탄틴과 레트로그레이드 디스플레이

전설적인 "돈 판초 DON PANCHO"

미학적 시그니처

시계 셀렉션

광란의 1920년대를 되돌아보며

역사적으로 18세기 중반 독일에서 제작된 레트로그레이드 데이트가 탑재된 천문 파르케 Parquet 시계가 언급되고 있으며, 동시에 6시에서 6시까지 눈금이 새겨진 반원형 다이얼에 레트로그레이드 핸드로 시와 분을 표시하는 일부 시계도 언급됩니다. 포켓 워치의 경우 1791년 제작된 레트로그레이드로 날짜와 월을 표시하는 모델이 1906년에 스위스 워치메이킹 저널 Journal Suisse d'horlogerie에 언급되었으며, 같은 시절 파리의 메종 레핀 Maison L'Épine은 레트로그레이드 아워 핸드를 탑재한 시계를 제작했습니다. 그러나 워치메이킹이 포켓 워치의 코드에서 벗어난 것은 20세기 초, 특히 광란의 1920년대부터였으며, 특히 레트로그레이드 디스플레이를 포함한 스페셜 디스플레이가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아르 데코 운동이 한창 진행 중이었으며, 창의적인 사고를 기반으로 레트로그레이드 또는 점핑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독창적인 케이스와 다이얼을 제작했습니다. 바쉐론 콘스탄틴은 당시에 이러한 예술적 움직임을 완벽하게 구현하는 자유로운 스타일의 시계를 선보이며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시간 표시를 급격하게 변화시킨 점핑 디스플레이는 이러한 새로운 워치메이킹 코드의 정의와 관련이 깊습니다. 18세기 중반 점핑 세컨드로 처음 소개된 후 점핑 아워로도 선보인 이 디스플레이는 12시 방향의 점핑 디스크로 숫자 시간을 표시하고, 레귤레이터와 마찬가지로 핸드로 분을 표시하는 유명한 윈도우 시계로 1820년대 최초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바쉐론 콘스탄틴은 1824년 최초의 점핑 아워를 제작하며 명성을 얻었습니다. 곧 창을 통한 점핑 미닛이 등장했으며, 세컨즈 핸드는 전통적인 타임피스와 일치하는 유일한 요소였습니다. 손목시계의 등장으로 트레일링 미닛과 함께 디스크 형태의 점핑 아워 디스플레이가 인기를 얻었으며, 사실상 핸즈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모델은 특히 충격에 강했습니다.

기계식 시계의 부활과 함께 점핑 디스플레이는 회전하는 부분, 움직이는 팔레트 스톤 또는 회전하는 프리즘을 통해 상당한 발전을 거듭해 왔으며, 여기에는 바쉐론 콘스탄틴의 점핑 아워와 레트로그레이드 미닛이 결합된 살타렐로 Saltarello 모델도 포함됩니다. 레트로그레이드 인디케이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공백기 끝에 1990년대에 기계식 손목시계가 다시 성공을 거두면서 이러한 유형의 컴플리케이션이 부활했습니다. 기술적인 관점에서 다이얼은 바이-레트로그레이드, 트라이-레트로그레이드 그리고 보다 더 복잡한 디스플레이로 한층 정교해졌습니다.



19세기의 달링 커터

19세기 중반의 라운딩 기계

하이 워치메이킹 바쉐론 콘스탄틴의 시그니처, 레트로그레이드 디스플레이

소개
고도로 정확한 메커니즘
광란의 1920년대를 되돌아보며
바쉐론 콘스탄틴과 레트로그레이드
디스플레이
전설적인 "돈 판초 DON PANCHO"
미학적 시그니처
시계 셀렉션

바쉐론 콘스탄틴과 레트로그레이드 디스플레이

스페셜 레트로그레이드 디스플레이는 아르 데코의 미학적 원칙을 완벽하게 반영한 스타일로 두각을 나타내던 1920년대부터 바쉐론 콘스탄틴에서 그 첫 황금기를 누렸습니다. 이러한 창의적 자극의 기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쉐론 콘스탄틴이 처음 페르디난드 버저 Ferdinand Verger를 만났던 몇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그는 1880년, 다양한 프랑스 부서에 매뉴팩처의 세일즈 매니지먼트를 맡은 파리 빅투아르 광장에 기반을 둔 젊은 워치메이커였습니다. 1896년 그는 자신의 시계 케이스 제작 사업을 설립, 시계와 무브먼트를 구매하는 바쉐론 콘스탄틴의 독점 대리인이 되었습니다. 1920년 그의 아들들이 새로운 브랜드명인 버저 프레르 Verger Freres로 사업을 인수한 후에도 1938년까지 바쉐론 콘스탄틴과의 파트너십을 이어 나갔습니다.

이 협업을 통해 1910년부터 1930년까지 다양한 작품이 탄생했습니다. 아르 데코 시대에는 자유롭게 상상력을 발휘하고 마음껏 사치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특별한 형태의 "폼 Form" 시계의 수가 갈수록 늘어나면서 창 형태의 날짜 표시와 함께 점핑 아워와 레트로그레이드 미닛을 포함한 스페셜 디스플레이가 등장했습니다. 이 시기에 바쉐론 콘스탄틴의 위상을 드높인 시계는 더블 레트로그레이드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1930 "브하 앙 라흐 Bras en l'Air (팔을 공중에 든)" 포켓 워치였습니다. 10시 방향의 푸셔를 누르면 인그레이빙 및 에나멜 처리된 골드 소재의 중국인 마술사의 팔이 위로 올라가 시와 분을 표시합니다. 또 다른 놀라운 모델은 1929년에 제작된 옉스 팁만 보이는 핸드로 다이얼 아래에서 점핑 아워와 미닛을 표시하는 시계입니다.



1. 점핑 아워를 탑재한 포켓 워치 (Ref. Inv. 10132) - 1824년
2. 다이얼 아래의 핸드로 표시되는 점핑 아워 및 미닛을 탑재한 포켓 워치 (Ref. Inv. 10152) - 1929년
3. "팔을 공중에 든 Arms in the air" 루틴 옉로우 앤 화이트 골드 포켓 워치, 바이-레트로그레이드 디스플레이 (Ref. Inv. 11060) - 1930년

하이 워치메이킹 바쉐론 콘스탄틴의 시그니처, 레트로그레이드 디스플레이

- 소개
- 고도로 정확한 메커니즘
- 광란의 1920년대를 되돌아보며
- 바쉐론 콘스탄틴과 레트로그레이드 디스플레이
- 전설적인 “돈 판초 DON PANCHO”
- 미학적 시그니처
- 시계 셀렉션

전설적인 “돈 판초 DON PANCHO”

1930년대에 바쉐론 콘스탄틴이 제작한 이 시계에 수집가들은 제작을 의뢰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돈 판초 Don Pancho라는 별명을 붙였습니다. 1935년에 메종은 마드리드에 기반을 둔 공식 딜러인 브루킹 Brooking으로부터 당시 매뉴팩처의 복잡한 포켓 워치에 사용되던 기능을 탑재한 손목시계의 고객 주문이 담긴 편지를 받았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과 스페인 전쟁의 시작으로 고객인 프란시스코 마르티네즈 라노 Francisco Martinez Llano가 칠레로 피난을 떠나 소통의 어려움을 겪으며 제작이 복잡해졌습니다. 메종의 아카이브에 보관된 서신은 이 타임피스의 창의적인 과정을 따라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이는 1940년 이전에 제작된 것으로 알려진 단 세 개의 손목시계 중 하나로 미닛 리피터와 캘린더 인디케이션 그리고 레트로그레이드 핸드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 주문을 실현하는 데는 4년이 소요되었으며 1940년, 오늘날 돈 판초 Don Pancho로 알려진 레퍼런스 36260이 탄생했습니다. 옐로우 골드 토노형 손목시계는 독창적인 12시 방향의 크라운과 우측의 전용 슬라이드 피스로 작동되며 낮은 음으로 울리는 미닛 리피터가 특징입니다. 캘린더 기능은 스몰 세컨즈 카운터에서 요일을 표시하며 중앙의 레트로그레이드 핸드로 날짜를 표시합니다. 케이스백에는 블루 에나멜 처리된 프란시스코 마르티네즈 라노 Francisco Martinez Llano의 이니셜이 새겨져 있습니다. 시계는 손쉽게 교체할 수 있는 5개의 동일한 스트랩이 제공되며, 바쉐론 콘스탄틴 제네바 및 브루킹 마드리드 Brooking Madrid 이중 문구가 새겨진 두 개의 다이얼이 특징입니다. 그 중 하나에는 라돔으로 강화된 야광 숫자와 야광 핸즈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프란시스코 마르티네즈 라노 Francisco Martinez Llano는 1947년에 사망하기 전까지 7년 동안 이 시계를 착용했으며, 이후 60년 동안 가족 금고에 보관되었습니다. 이 시계는 1930년대 메종의 기록 덕분에 완벽한 감정을 거쳐 2010년에 다시 등장했습니다.

2019년 5월 필립스 경매 카탈로그에 묘사된 것과 같이, 돈 판초 Don Pancho 스토리의 새로운 에피소드는 이 특별한 모델이 당대 가장 복잡한 손목시계 중에 하나로 소개된 중요한 사건인 2019년 경매에 부처지며 일어났습니다. “출품된 타임피스의 역사적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다양한 컴플리케이션 손목시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시대에 제작된 이 시계는 기술적 업적이자 인간 천재성의 마스터피스입니다. 미닛 리피터와 레트로그레이드 데이트가 탑재된 캘린더의 조합은 이전의 손목시계에서는 볼 수 없었으며, 우리는 비슷한 작품을 보기 위해 거의 60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1990년대 바쉐론 콘스탄틴의 역사적 시계에 관한 출판물을 통해 이미 이 특별한 타임피스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수집가들은 돈 판초 Don Pancho에 즉시 관심을 보였고,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 역사상 두 번째로 높은 입찰가로 낙찰되었습니다.



하이 워치메이킹 바쉐론 콘스탄틴의 시그니처, 레트로그레이드 디스플레이

- 소개
- 고도로 정확한 메커니즘
- 광란의 1920년대를 되돌아보며
- 바쉐론 콘스탄틴과 레트로그레이드 디스플레이
- 전설적인 "돈 판초 DON PANCHO"
- 미학적 시그니처
- 시계 셀렉션

미학적 시그니처

1930년대 이후에는 스페셜 디스플레이의 창의적인 영감이 잠잠해졌습니다. 바쉐론 콘스탄틴에서는 독특한 다이얼에 대한 열풍이 다시 나타났는데, 특히 1994년에 선보인 메르카토르 Mercator시계를 통해 두드러졌습니다. 메종의 디자이너들은 20세기 초반 "팔을 공중에 든 Arms in the air" 디스플레이에서 영감을 얻어 더 작은 손목시계에 이를 통합했습니다. 16세기 지리학자 게라르 메르카토르 Gerard Mercator에 경의를 표하는 이 작품은 에나멜 또는 인그레이빙 처리된 다이얼에 트레일링 아워 및 미닛의 더블 레트로그레이드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12시 방향에 핸드 축이 위치하여 Mûtiers d'Art 컬렉션으로 이 모델에 표현할 수 있는 이상적인 공간을 제공합니다. 3년 후인 1997년, 메종은 베를린에서 개최된 시계 박람회에서 썬레이 기요세 실버 톤 다이얼에 점핑 아워와 레트로그레이드 미닛이 탑재된 살타렐로 Saltarello 리미티드 에디션을 선보이며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새로운 밀레니엄이 도래하고 기계식 시계가 전성기를 맞이하면서, 대담해진 워치메이킹은 다이얼에서 더욱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쉐론 콘스탄틴의 레트로그레이드 디스플레이는 현재 컬렉션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예시는 레퍼런스 47245와 47247에 나타나며, 두 개의 손목시계는 6시 방향에서 요일을 표시하고 레트로그레이드 캘린더는 두 번째 모델의 세미 오픈 다이얼에 탑재되었습니다. 레퍼런스 47031은 퍼페추얼 캘린더를 추가하는 것과 동일한 접근 방식을 적용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제작된 이 시계들은 1950년대 바쉐론 콘스탄틴 모델에서 영감을 얻은 곡선으로 디자인되어 Patrimony 컬렉션이 되었습니다. 바쉐론 콘스탄틴 설립 260주년을 기념하여 2015년 공개된 레퍼런스 57260은 레트로그레이드 데이트와 더블 레트로그레이드 핸드가 장착된 스플릿-세컨즈 크로노그래프를 결합한 독창적이고 새로운 컴플리케이션이 특징입니다.

이 미학적 시그니처는 메종에서 2023년에 새롭게 선보이는 제품에 적용되어 Overseas, Patrimony 그리고 Traditionnelle 컬렉션과 독창적인 캐비노티에 듀얼 타임 그랜드 컴플리케이션의 핵심으로 해석됩니다. 이 제품들은 기술이 우아함에 전념하는 바쉐론 콘스탄틴만의 워치메이킹 스타일을 상징합니다.



1. 메르카토르 Mercator 골드 손목시계 (Ref. Inv. 12130) - 1994년
2. 살타렐로 Saltarello 옐로우 골드 손목시계, 점핑 아워 디스플레이와 레트로그레이드 미닛 (Ref. Inv. 11000) - 1997년

하이 워치메이킹 바쉐론 콘스탄틴의 시그니처, 레트로그레이드 디스플레이

소개
고도로 정확한 메커니즘
광란의 1920년대를 되돌아보며
바쉐론 콘스탄틴과 레트로그레이드
디스플레이
전설적인 "돈 판초 DON PANCHO"
미학적 시그니처
시계 셀렉션

시계 셀렉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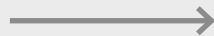
“팔을 공중에 든 Arms in the air” 투톤 옐로우 앤 화이트 골드 포켓 워치, 바이-레트로그레이드 디스플레이 - 1930년

1930년 제작된 투톤 바이-레트로그레이드 포켓 워치는 스페셜 디스플레이를 통해 표현할 수 있는 미학의 자유를 선보입니다. 10시 방향의 푸셔를 누르면 중국인 마술사의 팔이 올라가 새틴 마감된 실버 다이얼의 양쪽에 있는 눈금이 새겨진 두 개의 부분 위에서 시와 분을 표시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인그레이빙 및 에나멜 처리된 골드 소재의 마술사는 당시에 유행하던 오토마톤을 연상시키는 다양한 자세를 취합니다.

라 까하벨 La Caravelle 다이아몬드 세팅 플래티넘 포켓 워치, 바이-레트로그레이드 디스플레이 - 1937년
1880년대에는 특별한 부채꼴 모양의 “올라간 팔 Raised arms” 또는 “팔을 공중에 든 Arms in the air” 디스플레이가 등장했습니다. 이러한 다이얼의 대부분에는 시와 분을 표시하는 움직이는 팔이 달린 모형이 있습니다. 이 디스플레이는 일반적으로 연속적이지 않으며, 대신 실제 시간에 핸드를 두기 위해 케이스 펜던트에 압력을 가해야 했습니다. 100년 후, 광란의 1920년대는 라 까하벨 La Caravelle이라 불리는 1937년의 포켓 워치처럼 “팔을 공중에 든 Arms in the air” 오리지널 디스플레이에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중앙에 다이아몬드가 세팅된 선박의 돛은 두 개의 레트로그레이드 핸드로 연장되어 시와 분을 표시합니다.

옐로우 골드, 옉닉스, 록 크리스탈, 라피스 라줄리 아르 데코 클락 - 1927년

8일 무브먼트와 레트로그레이드 아워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1927 클락은 가장 순수한 아르 데코 스타일을 반영합니다. 18K 옐로우 골드로 제작되어 옉닉스, 록 크리스탈, 라피스 라줄리로 장식된 이 모델은 황도대를 표시하는 부채꼴 모양의 구조가 특징입니다. 앞면에는 입을 통해 록 크리스탈 물이 흐르는 마스카롱 Mascaron분수가 장식되어 있습니다



1. “팔을 공중에 들고 있는(Arms in the air)” 투톤 옐로우 및 화이트 골드 포켓 워치, 바이-레트로그레이드 디스플레이(Ref. Inv. 11060) - 1930년
2. 라 까하벨 La Caravelle 다이아몬드 세팅 플래티넘 포켓 워치, 바이-레트로그레이드 디스플레이 - 1937년
3. 옐로우 골드, 옉닉스, 록 크리스탈, 라피스 라줄리 아르 데코 클락 (Ref. Inv. 10548) - 1927년

하이 워치메이킹 바쉐론 콘스탄틴의 시그니처, 레트로그레이드 디스플레이

소개
고도로 정확한 메커니즘
광란의 1920년대를 되돌아보며
바쉐론 콘스탄틴과 레트로그레이드
디스플레이
전설적인 "돈 판초 DON PANCHO"
미학적 시그니처
시계 셀렉션

시계 셀렉션

메르카토르 Mercator 옐로우 골드 손목시계, 바이-레트로그레이드 디스플레이 - 1995 년
휴머니스트이자 지리학자인 게라르 메르카토르 Gerard Mercator (1512-1594)에 경의를 표하는 메르카토르 Mercator 시계에는 게라르 메르카토르의 지도 제작법에 따라 아메리카 대륙의 지도가 그려진 핸드 인그레이빙 18K 옐로우 골드 다이얼에 레트로그레이드와 두 부분으로 나뉜 아워 및 미닛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12시 방향의 축에 위치한 두 개의 핸드로 시와 분을 즉각적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핸즈는 지도 제작자가 평생을 사용하고 자신의 시그니처로 삼은 장치인 나침반 모양으로 디자인되었습니다.

살타렐로 Saltarello 옐로우 골드 손목시계, 점핑 아워 디스플레이와 레트로그레이드 미닛 - 1997 년
쿠션 형태의 살타렐로 Saltarello 모델은 기발하고 독창적인 방식으로 우아함을 표현하는 "Classic with a twist" 접근에 대한 미학적 탐구의 부응입니다. 아라비아 숫자 미닛 트랙이 장식된 선버스트 실버 톤 다이얼과 옐로우 골드 케이스, 투명한 케이스백이 특징입니다.

살타렐로 Saltarello 핑크 골드 손목시계, 점핑 아워 디스플레이와 레트로그레이드 미닛 - 2000 년
1997년 베를린 시계 박람회에서 처음으로 선보인 살타렐로 Saltarello 시계는 화이트 골드(200피스), 핑크 골드(200피스), 옐로우 골드(100피스)의 500피스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창 형태의 점핑 아워 디스플레이와 레트로그레이드 미닛 핸드를 구동하는 칼리버 1120이 탑재된 이 시계는 1920년대에 바쉐론 콘스탄틴이 명성을 얻었던 스페셜 디스플레이에 대한 경의를 포함합니다. 이 모델은 핸드 기요세 핑크 골드 다이얼이 탑재된 200피스 핑크 골드 타임피스 중 하나입니다.

메르카토르 Mercator 플래티넘 손목시계, 바이-레트로그레이드 디스플레이 - 2001 년
클루아조네와 미니어처 기법을 사용한 그랑 피 폴리크롬 에나멜로 제작된 다이얼은 16세기 플레미쉬 Flemish 수학자이자 지리학자인 메르카토르 Mercator가 그린 지도를 재현하며, 특히 이 다이얼에는 유럽의 지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 컬렉션을 위해 나침반 모양의 레트로그레이드 핸드와 점핑 아워, 세미 드래깅 미닛이 디자인되었습니다.



바쉐론 콘스탄틴은 1755년 설립되어 270년 가까이 세계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속해온 시계 제조사로, 여러 세대를 거쳐 숙련된 장인들을 통해 탁월한 워치메이킹의 유산과 세련된 양식의 정교한 시계 제조 기술을 충실히 계승하고 있습니다.

우아한 하이엔드 워치메이킹의 정수를 대표하는 바쉐론 콘스탄틴은 독창적인 기술, 미학적 완성도, 최상의 장인 정신과 마감 기법으로 품격 있는 타임피스를 제작해오고 있습니다.

바쉐론 콘스탄틴은 독보적인 전통과 혁신의 정신으로 고유의 가치를 이어오며, 패트리모니, 트래디셔널, 메티에 다르, 오버시즈, 피프티식스, 히스토리 그리고 에제리 컬렉션을 탄생시켰습니다. 또한, 메종은 안목 높은 시계 애호가들에게 "캐비노티에"를 통해 특별한 주문 제작 시계뿐만 아니라, 레 컬렉셔너로 구성된 빈티지 타임피스를 경험할 수 있는 진귀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VacheronConstantin

#OneOfNotMany


VACHERON CONSTANTIN | ONE OF
GENÈVE NOT MANY.

